



보도 일시	<전매체> 1.19.(목) 07:00	-
-------	----------------------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044-204-7550)
	국제통상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강성국 (044-204-7558)

이영 장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계기 소통행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16~20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참석을 계기로 국제기구와 중소기업 정책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 지역에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이영 장관은 18일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창업·벤처 사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영국 등 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 신설을 주도했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의체인 디4에스엠이(D4SME) (Digital For SME)에서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적극 홍보해왔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그간의 협력기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서 이영 장관은 개도국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국제무역센터(ITC* : 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파멜라 콕-패밀턴(Pamela Coke-Hamilton) 사무국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국제연합(UN)과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설립한 기구로, 개도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세계(글로벌) 수출 시장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우간다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제무역센터(ITC)를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과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간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을 우간다에 전수, 3년간 1천개 창업기업(스타트업) 발굴 목표

이를 위해, 국제무역센터(ITC)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이영 장관은 양측 간 정기적인 실무협의 채널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으며,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같은 날 이영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해 칼리드 빈 압둘아지즈 알 팔레(Khalid bin Abdulaziz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알 팔레 장관이 작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에 방문해준 데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시 벤처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 공동기금(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 한국벤처투자(KVIC) - 에스브이씨(SVC) (Saudi Venture Fund) 간 업무협약(MOU) : 모태기금(펀드) 운영 경험 및 정책 공유, 공동기금(펀드) 조성을 위한 노력 등

이영 장관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에서 “최근 세계(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추구하는 바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30년까지 세계경제규모 15위(현(現) 19위), 국내총생산(GDP) 내(內) 비석유부문 비율 50%(현(現) 16%),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비중 35%(현(現) 20%) 목표 등